# 광주 고교배정방식 변경안 논란 가열

## 희망네트워크 "손질 불가피" … 교원단체 "선택권 제한"

### 시교육청 28일 확정, 올 중 3부터 적용

광주시교육청이 28일 확정할 2013학년도 고교 배정방식 변경안에 대해 학부모, 교원단체 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학교에 고루 배정하는 것은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배정방식을 손질해 명실상부한 평준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26일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지원 선발비율(40%)을 축소해 5%대로 유지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컴퓨터 추첨 방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지원 40%가 유지된 탓에 특정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등 평준화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고교배정 방식은 학생들이 선지원(2개교)한 해당 학교에서 추첨으로 정원의 40%를 먼저 뽑고 나머지 60%는 지리적 정보시스템(GIS)을 적용해 학생이 선택한 5곳 가운데 한 곳을 추첨배정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선지원)을 주는 방식이 우수학생들의 사립고 쏠림 현상과 공·사립 고교간 학력차를 심화한다며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별 정원에 비례하여 등급별 인원을 무작위 추출 배정함으로써 학교마다 학생들의 성적대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이 28일 고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이 방안을 확정하면 현재 중 3의 고교 배정에 적용된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은 이같은 시교육청의 입장과 같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그러나 "비선호 학교에 대한 교육력 제고 노력 등은 도외시한 채 학교 선택권만을 제한하려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구시대적 발상이다"며 반대하고 있다.

'광주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도 최근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없는 고교 배정방식 변경 추진 중단과 시의회의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 김모(46)씨는 "학생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고교 배정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검토없이 교육청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주장과 입장이 첨예한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절차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시험 91% 합격 거점 국립대학 중 1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첫 변호사 시험에서 91%의 합격률을 기록, 정원 100명 이상의 전국 거점 국립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3일 법무부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응시자 96명 중 87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응시자 수 또한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와 함께 상위권에 포함돼 로스쿨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채희종기자 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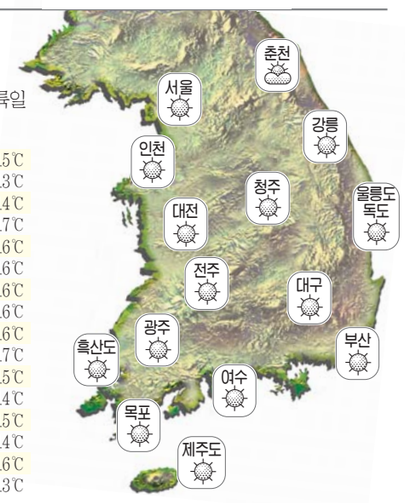
## 오늘 날씨

해뜸 06시 26분 해짐 18시 50분 달뜸 08시 42분 달짐 23시 11분

**일교차 커요**

구름이 많고 서해안과 내륙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다.

| | | |
|---|---|---|
| 광 주 | 구름조금 | 2/15℃ |
| 목 포 | 구름조금 | 2/13℃ |
| 여 수 | 구름조금 | 5/14℃ |
| 나 주 | 구름조금 | -2/17℃ |
| 완 도 | 구름조금 | 2/16℃ |
| 구 례 | 구름조금 | -2/16℃ |
| 강 진 | 구름조금 | 0/16℃ |
| 해 남 | 구름조금 | -1/16℃ |
| 장 흥 | 구름조금 | -1/16℃ |
| 순 천 | 구름조금 | 3/17℃ |
| 영 광 | 구름많고한때비 | -1/15℃ |
| 진 도 | 구름조금 | 1/14℃ |
| 전 주 | 구름조금 | 0/15℃ |
| 군 산 | 구름조금 | 0/14℃ |
| 남 원 | 구름조금 | -3/16℃ |
| 흑산도 | 구름조금 | 5/13℃ |




| 〈오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남서 | 0.5~1.5m |
| 먼바다 | 남~남서 | 1.0~2.0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서 | 0.5~1.0m |
| 먼바다 | 남서~서 | 0.5~1.5m |

| 식중독지수 | 자외선지수 | 뇌졸중지수 |
|---|---|---|
| 주의 | 보통 | 낮음 |

| 〈오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서~서 | 0.5~1.5m |
| 먼바다 | 남서~서 | 1.0~2.0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서 | 0.5~1.5m |
| 먼바다 | 남서~서 | 1.0~2.0m |

| | 밀물 | 썰물 |
|---|---|---|
| 목포 | 04:45 16:37 | 09:57 21:53 |
| 여수 | 11:15 23:52 | 05:10 17:22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28(수) | 29(목) | 30(금) | 31(토) | 4/1(일) | 2(월)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6/17 | 5/17 | 9/12 | 5/10 | 2/13 | 5/16 |

### 광주지법 그림자배심원 참여 7인

## "법원 문턱 낮아졌나 보러왔다"

"법원 문턱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알고 싶어서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처를 입은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이나 그림자배심원제도 등 법원의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들 시민배심원들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유무죄 여부 및 양형과 관련 모의 평결을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26일 오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존속살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물론 그림자배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씨는 지난해 말 가출하려다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꾸중을 듣고 살해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 첫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에는 자발적으로 그림자배심원을 신청한 취업준비생, 주부, 회사원, 기업가 등 다양한 연령·계층의 7명이 참여했다.

그림자배심원 양재근(67·사업)씨는 "재판을 위해 평소 일정을 모두 미뤘다"며 "법원 문턱이 너무 높아 불만이 있었는데 진정으로 법원이 소통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오카리나에 빠진 이주여성들** 26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이 오카리나를 배우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5·18 트라우마센터, 치료·재활·복지 아울러야"

### 용역보고 3개 방안 제시

5·18 광주민중항쟁 피해자를 위한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는 치료와 재활,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5·18기념재단과 평화박물관측은 27일 오후 7시 5·18교육관(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에서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결과'보고회를 갖고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회를 앞두고 26일 공개한 보고서는 "새로 만들 트라우마 센터는 치료와 재활, 복지 등을 안정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용역팀은 국외 트라우마센터 사례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센터의 규모와 관련 상근인력 25명에 연간 예산 15억이 투입되는 기본형, 상근인력 40명에 연간 예산 21억 규모인 확대형, 상근인력 12명에 연간 예산 8억 규모의 축소형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